

새해 인사

역사의 전환점으로서의 2022년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 기하라 가쓰노부(도시샤대학교)

202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COVID-19로 인해 세계가 출렁이는 이례적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속 대학교와 복지기관 등도 불편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피해를 받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도 예외없이 모든 학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임원회, 그 밖의 위원회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호쿠복지대학교가 주최로 개최된 추계대회도 관계자의 지혜와 노력 덕분에 온라인으로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대회는 부디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계는 COVID-19로 인한 실업과 고용문제, 생활곤란문제, 국기초 수급문제, 스테이 홈으로 인한 가정 폭력, 아동학대의 증가,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젊은 여성의 자살률 증가 등이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보통의 일상에서는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았던 사회복지문제가 실생활의 문제로 이목을 끈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시 COVID-19 관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social worker’라는 말도 뉴스와 신문에 자주 언급되어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시민권’을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지지하고 공헌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전문직으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022년은 일본 근대의 시발점인 메이지 원년 1868년(물론 이론(異論)도 있지만)부터 15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54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77년씩 근대와 현대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즉, 1868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77년이 근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5년부터 2022년까지 77년이 현대로 구분됩니다. 2022년에서 77년 뒤는 어떠한 시대가 되어 있을까요. 77년 지나면 2099년이 됩니다. 2099년은 21세기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니 정말로 2022년이라는 해는 새로운 분기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보면 2022년은 확실히 시대적 전환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망 가득한 그 무엇가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걱정되는 것은 전후(戰後)의 선진국에서 구축해 온 하나의 ‘합의사항’으로서의 데모크라시(democracy)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도 이민과 난민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난제에 직면하여 세계를 리드해 온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각각의 나라들도 결코 평화롭고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문제, 이슬람 사회와의 대화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국제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미중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대만을 둘러싼 긴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위태로운 정치 상황, 동유럽에서의 러시아 정세도 눈을 땔 수가 없습니다. 전후 77년간 쌓아 온 데모크라시는 ‘불멸’의 가치관으로 생각되어져 왔지만 이러한 세계 정세를 보면 이미 위기는 찾아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츠루미 슌스케의 ‘데모크라시

뒤에는 파시즘이 따라온다'라는 말에서 섬뜩할 정도로 다음 시대가 투영되어 보이는 것은 저 뿐일까요.

지금의 우리 사회는 데모크라시가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격차와 불평등,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신진기예의 사이토 코헤이가 마치 '예언자'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근대에서 현대까지 발달해 온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신 자본주의'와 같은 미미한 변화로는 더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현대 자본주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초래한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파괴와 이상기상 등의 환경문제라는 붕괴의 위기는 '성장경제'를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사회경제구조로는 더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며 그것을 멈추고 '윤택한 탈성장 경제'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한다는 사이토의 제안은 래디컬하지만 심사숙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는 좋은 삶과 관계없이 이러한 지구 환경 및 세계 정세의 이해와 거시적 역사인식, 경제체제와의 맥락을 빼고 독자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셜워크의 전문성으로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생활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세계 정세, 우주적 규모에서의 '지구' 환경이 실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2022년이 근대, 현대, 그리고 다음 시대로의 가치 전환적 변혁의 시대의 개막이라면 지금 그 세계의 전환점에 대한 발신을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주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 요구되며 우리 세대가 그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아직 COVID-19 상황의 향후 추이도 불확실하며 COVID-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우리 일본사회복지학회가 COVID-19 위기 속에서 고뇌하는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미력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학은 연구으로서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지만 새해에도 함께 사회복지학 연구를 한 발 한 발 정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 한 · 중 3개국 학술교류 보고

부회장 /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와케 준코(도쿄도립대학교)

일본사회복지학회는 한국사회복지학회 및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와 ‘한국 · 중국 · 일본의 연구교류 추진에 관한 각서(이하, 각서)’를 체결하여 연구대회 등을 통해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주로 각 학회의 연차학술대회 심포지엄에 상호 초빙하거나 상대국 회원에게 개인연구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해 2020년도부터 대면으로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8월 4일 온라인으로 한중일 3개국 학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예정되었던 간사국 한국에서의 심포지엄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각국의 연구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더라도 각서에 따라 회원에게 개인연구의 발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국 모두 온라인을 통해 추계 대회를 개최하여 교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9월 11일~12일에 제 69회 대회(토호쿠복지대학교)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한국에서 5편, 중국에서 2편의 연구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 23일에 개최된 한국의 추계대회(서울대학교)에서는 일본에서 1편의 연구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의 추계대회는 당초 예정(10월 9일~10일)이 12월 12일로 연기되었지만 무사히 온라인으로 개최가 이루어져 일본에서 1편의 연구발표를 하였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한 혼란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지만 온라인 참가 방식이 보급되어 국제학술교류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교류위원회가 주최한 ‘유학생과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해외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회원이 온라인으로 발제하고 온라인 그룹 간담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차 조정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온라인 형식이 도입됨으로써 이전보다 국제적인 학술교류가 용이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대면으로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시간이나 경제적인 제약을 생각하면 온라인을 통한 교류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병행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에서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과 교류 및 정보교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활약하는 회원이나 연구자에게 최신 연구 동향과 현지 학회의 정보 등을 릴레이 방식으로 소개하는 기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서 학회 홈페이지를 더욱 국제화하여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번역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양한 매체나 수단을 활용하여 학회 및 회원 사이의 국제학술교류를 지속적이고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년도 추계공동학술학회 자유연구 발표 보고

가와이케 토모코 (츠루미대학교 단기대학부)

‘아시안 펠로십’의 가치

작년 10월에 개최된 ‘한국사회복지학회(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리모트 발표였다. 물론 첫 리모트 해외 발표 경험은 긴장도 됐지만 뜻깊었다.

발표 주제는 ‘의존 노동(돌봄 노동)으로서 보육직의 Fragility에 대한 주시-케어 윤리로 해독하는 보육사의 <소리>’였다. 분량 관계상, 본고에서는 자유연구 발표가 ‘도쿄도 보육사 조사 보고서’의 자유기술을 Kitty(2010)론에 입각해 분석한 것이며 보육사의 ‘보육과 자신의 육아’라는 케어노동 사이에서의 갈등, 거기에 보호자의 육아를 포함하면 ‘3가지 케어노동의 대립구조’가 보였다는 것만을 기술한다. 한국의 연구자로부터 “한국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와이케씨의 후속 연구를 기대합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받았다.

한국 연구자들의 발표 주제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복지 가치의 관점에서 공정과 능력주의 다시 보기’, ‘e-welfare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방향성 모색:덴마크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이었다. 전자는 청년의 취업·경제적 불공평에 관한 신문기사 키워드 분석이었고 후자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IT시스템에 관한 발표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코로나라는 위기적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것을 배웠다. 해외와의 ‘온라인: 불가시적 라인’은 거리뿐만 아니라 기성 개념의 장벽을 점진적으로 허물 수 있는 파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국은 온라인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제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Text Mining을 통한 연구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배웠다.

일본 학계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토론 스타일도 자극적이었다. 과거에 참석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번 참석의 계기가 되었다. 그야말로 기대했던 대로 해외 발표의 묘미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담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인접 영역의 학회처럼 채택된 연구에는 번역, 통역, 여행경비의 지원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연구성과가 있어도 한국어와 중국어를 못하거나 여행경비가 부담되어 참가할 수 없는 연구자들도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건 젊은 대학원생만이 아니다. 퇴직 후의 연구자들도 ‘오랜시간 진행한 연구’의 발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리모트’라면 연구발표의 기회를 늘려 주었으면 한다. 양은 질을 능가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만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본 학회에서 경험한 세번의 발표(한국사회복지학회 2회, 동아시아 사회복지포럼(중국 청두시) 1회)를 통해 인근 아시아 연구자들과 배움을 공유하는 가치를 깨달았다. 청두(시)와의 인연은 곧 중일의 연구자들과 함께 엮은 ‘洞察日本社会福祉の动向与未来:亚洲福利国家的典:范及比较研究的启示 (国立西南交通大学国际老龄科学研究院

出版) = 일본사회복지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고찰: 아시아복지국가모델과 비교연구를 통하여(국립서남교통대학 국제고령과학연구원 출판)으로 결실을 맺는다.

코로나라는 위기는 이국(異國)에 몸을 두고 오감으로 느끼며 대면으로 배움을 공유하는가치의 재발견이기도 했다.

‘본고장의 치킨’, ‘본고장의 휘귀’를 즐기며 연구 토론을 꽃피울 날이 기다려진다.

문헌 : Kitty, Eva Feder.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1999. 2nd. 2020. (=2010, 岡野八代ら監訳 『愛の労働あるいは依存とケアの正義論』 白澤社.)

중국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2021년차 총회 자유연구발표 보고

와타나베 노부히로(국제의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문

만연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중국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연차총회’가 2년 연속으로 온라인 개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2021년도에는 개최일까지도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10월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개최 직전에 11월로 연기가 결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2월 12일(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도 경험이 부족한 저는 해외학회 발표에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하물며 부득이했다고 하지만 직전에 연기 및 일정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최 전까지의 두달간은 “학회가 언제 개최되려나?...개최나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나날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안감 때문인지 두려움이 가득 찬 심정이 되니 오히려 고마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계에 많이 계십니다. 본인이 감염되어 사회 참가가 여의치 않게 된 분, 생사의 경계에서 분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지인·친구·동료 등이 감염되어 식료품 등의 조달을 돕거나 일을 대신하거나 그 외 다양한 형태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학회 개최 연기’라는 영향은 실로 미미합니다. 오히려 학회에 참가하고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한 연구테마는 ‘Social support process between different religious communities’입니다. 필리핀에서의 필드 워크를 근거로 한 커뮤니티 워크에 대한 발표인데 조사 당시 태풍의 영향과 현지 지자체 직원의 암살사건 발생으로 인해 당초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반쪽 연구’가 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상하이)의 연구자·스태프 분들은 연구로서 충분치 못한 점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의 조사 목적과 의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즉, 연구에서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가 아닌 ‘할 수 있었던 것,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기대되는 시사점과 의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적이고 겸허하고 배려 깊은 태도에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대회 준비에 참여하신 분들, 등단하여 발표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준비와 조율, 수고를 해 주신 일본사회복지학회 다카무네씨를 비롯한 사무국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연구자의 네트워크 "CS-NET"를 발족합니다.

연구지원위원회 위원 미야자키 오사무 (메이지학원대학교)
야스다 마키(호쿠쇼대학교 단기대학부)

그간 연구지원위원회에서는 본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연구자 네트워크(Creative Support Network : 약칭 CS-NET)의 발족을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올해 3월부터 CS-NET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CS-NET는 젊은 연구자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연구자란 연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연구자를 가리키며 다양한 연령과 경험이 있는 회원도 포함됩니다. 젊은 연구자에게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학회 회원의 커리어는 타 학회에 비해 다양하고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학부에서 바로 대학원에 진학한 회원뿐 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한 회원 등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지 관계 형성 여부에 소속 연구기관 및 거주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한 격차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젊은 연구자 개인의 지속적인 연구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학에는 학제적인 지견을 받아들여 발전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본 학회에도 사회복지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연구 커리어 초기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 간의 깊은 교류는 개개인의 연구자에게 지적 자극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CS-NET는 이러한 부분들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연구지원의 일환입니다. CS-NET에서는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젊은 연구자들의 일상적인 교류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CS-NET의 발족 후에는 연구 진행을 위한 정보교환회와 학습회 등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참가하는 회원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CS-NET의 발족과 관련하여 연구지원위원회에서는 3월 21일(월)에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CS-NET의 참가 및 활용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3명의 젊은 회원들이 발제한 후 그 내용을 참고로 정보교환회를 진행하여 젊은 연구자가 직면하는 과제와 네트워크 조성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이벤트에는 본 학회에 입회를 검토하고 계신 비회원 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젊은 연구자'에 대한 정의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監訳者

姜 民護 (同志社大学社会学部社会福祉学科助教)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客員研究員)

翻訳者

李 承玟 (同志社大学大学社会学研究科社会福祉学専攻博士後期課程)

번역 감수

강 민호 (도시샤대학교 사회학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번역

이 승민 (도시샤대학교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사회복지학전공 박사과정)